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프랑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France

프랑스에서 약 12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해외유입 사례(2명) 보고

- '25년 12월 4일 프랑스 보건부는 중동 지역 여행력이 있는 자국민 2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확진됐다고 발표함
- 확진 사례들은 현재 모두 안정적인 상태이며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 중임. 그 외 인적사항, 여행 국가, 감염경로 등 상세 역학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
- 보건당국은 다른 여행객과 접촉자를 조사 및 관리 중이며, 현재까지 2차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 프랑스에선 '13년 이후 약 12년 만에 보고된 사례이며, 유럽 전역 기준으로 '18년 영국의 해외유입 사례 이후 7년 만에 보고됨

• ECDC는 신속 위험평가에서 유럽 내 일반인에 대한 메르스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18년 당시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유지함

\* (권고사항) ① 낙타 접촉 및 생유 섭취 금지, ② 귀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신고 및 여행력 알리기, ③ 의료기관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감염예방관리 수칙 준수 등

• 국내에서는 '18년 해외유입 사례 보고 이후 추가 발생 없음. 중동 지역 여행자의 경우 낙타 접촉 자제, 호흡기 증상자 접촉 자제 등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안내받을 것을 당부함

#### 2. 웨스트나일열, 스위스 West Nile fever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자국 내 최초의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사례(1명) 발생

- 스위스에서 자국 내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최초 발생을 보고함(12.4). '22년 당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스위스 남부의 티치노 주에서 3년 만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 해당 사례는 티치노 주 거주자로 웨스트나일열 신경계 침습 질환 증상 중 하나인 수막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하였으며, 진단 검사를 통해 웨스트나일열 감염이 확인됨
- 보건당국은 '22년부터 티치노 주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인체감염은 예상된 발생이며, 현재 모기 활동 기간이 끝났고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웨스트나일열 감염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국내에선 20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권고

### 3. 인플루엔자, 중국 & 일본 Influenza in China & Japan

중국과 일본에서 전년 대비 일찍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되어 현재까지 높은 수준 발생 지속

- 중국의 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증가 중으로 유행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48주차 중국의 전체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률이 47.8%로 전주(40.9%) 대비 6.9%p 상승함
- '25년 48주차 일본의 인플루엔자 지표(감시 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4.99명(총 173,380명)으로 전주(51.12명)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간(4.86명)의 약 10배 수준임(12.5.)
- 중국과 일본 모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하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각국은 교육시설 집단발생 대응, 의료 역량 및 소아진료 확대,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등 감염 확산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년 동 기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46주) 66.3명 → (47주) 70.9명 → (48주) 69.4명

### 4. 세균성이질, 유럽 지역 Shigellosis in EU/EEA & UK

EU/EEA 4개국 및 영국에서 카보베르데 여행 관련 세균성이질 환자 다수 발생 보고

- '25년 12월 3일 기준, EU/EEA 4개국(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및 영국에서 세균성이질 환자 193명이 ECDC에 보고됨
- 환자의 대부분은 최근(9월~11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섬나라 카보베르데(Cape Verde) 내 특정 지역 (Sal, Boa vista)에 있는 호텔·리조트 체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
- 유전체 분석을 통해 주로 *Shigella sonnei*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어 공통된 감염원이나 지속적인 전파경로의 존재가 시사되나, 감염경로나 공동노출원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ECDC는 카보베르데 여행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동일한 이질균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카보베르데 여행자의 세균성이질 감염 위험을 '중간(moderate)' 수준으로 평가함
- 국내에서 '25년(12.7. 기준) 보고된 세균성이질(법정감염병 제2급) 신고 환자 수는 59명(국내발생 48명, 해외유입 11명)으로, 주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장관 감염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함

# 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프랑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France

## 발생 상황

프랑스에서 약 12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됨. 최근 중동 지역을 여행한 단체 여행객 중 2명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25년 12월 4일 프랑스 보건당국은 중동 지역 여행력이 있는 자국민 2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확진됐음을 발표함<sup>1)2)3)4)5)6)</sup>
    - 확진 사례들은 현재 모두 안정적인 상태이며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 중임. 그 외 인적사항, 여행 국가, 감염경로 등 상세 역학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sup>1)2)3)</sup>
    -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는 70대 고연령층으로 35명의 여행객 일원이었으며, 현지에서 익힌 낙타 고기를 섭취했고, 오만에서 입국한 후 프랑스에서 확진됨. 다만 프랑스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확인이 필요함<sup>1)4)5)6)</sup>
    - 보건당국은 현재 나머지 여행객과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자가격리 및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차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sup>1)2)3)6)</sup>
  - 프랑스에서는 '13년 중동 여행 후 확진된 환자 1명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의 2차 감염이 확인된 이후 12년 만에 발생한 사례임. 이로써 프랑스의 총 메르스 발생건수는 4건이며, 모두 중동지역 여행력이 있는 해외유입 및 관련 사례임. 또한 '18년 영국 사례(1명,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이후 약 7년 만에 확인된 유럽 내 확진 및 유입 사례임<sup>1)3)7)</sup>
  - 한편, '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총 2,628명 보고되어 그중 948명이 사망했으며(치명률 36%),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함, '25년에는 프랑스 보고 사례를 제외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총 12명(사망 3명, 치명률 25%) 발생함<sup>8)</sup> ('25.9.3. 기준)
    - \* 현재까지 총 2,219명 보고 및 그중 867명 사망(치명률 39%)
    - \*\* (최근 현황) ('19) 205명 → ('20) 61명 → ('21) 18명 → ('22) 10명 → ('23) 4명 → ('24) 8명 → ('25) 12명
- ※ 잠정 통계로 지연보고 등으로 인해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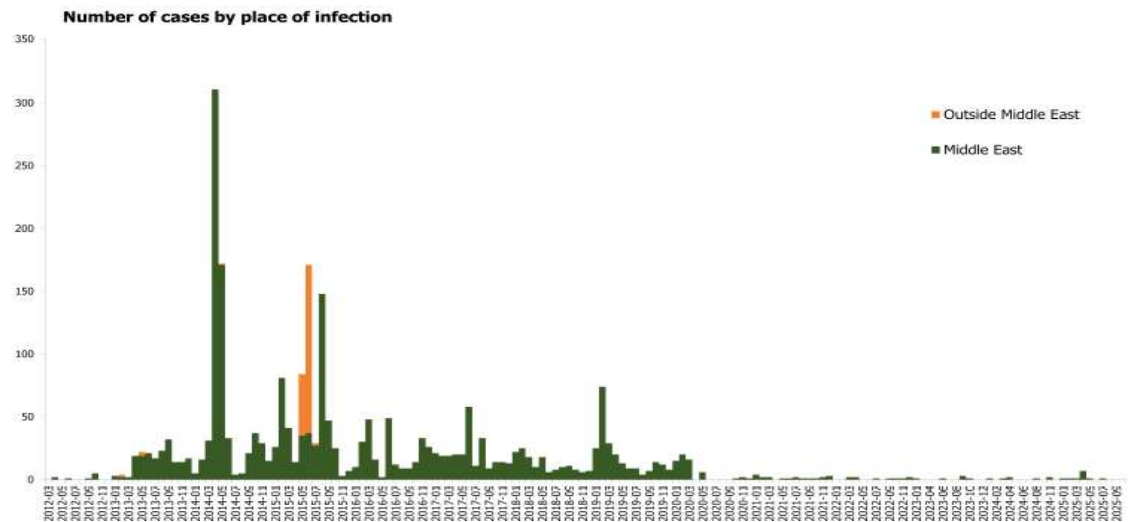


그림 1-1. 2012년 5월~2025년 10월 메르스 확진자 발생 현황(발생지역 기반)<sup>9)</sup> (ECDC, '25.11.7.)

**상황 평가**

- ECDC는 메르스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산발적인 해외유입 발생에 대비하여 조기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 및 진단과 병원 내 전파 차단 대비를 촉구함
- 국내에서는 '18년 해외유입 사례 보고 이후 추가 발생 없음. 중동 지역 여행자의 경우 낙타 접촉 자제, 호흡기 증상자 접촉 자제 등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안내받을 것을 당부함

· ECDC는 해외여행자들로부터 산발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럽 내 일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음’, 메르스의 질병 영향력은 ‘낮음’으로 평가하여 현재 메르스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함<sup>2)</sup>

- 또한 '18년 영국 확진 사례 발생 시 ECDC가 수행한 22차 신속 위험평가에서 제안하였던 권고 사항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해당 권고사항으로는 ①여행자 대상: 중동지역 여행자 대상 낙타 접촉 및 생유 섭취 금지 안내, 손위생 및 호흡기 에티켓 준수, ②귀국자 대상 :귀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신고 및 여행력 알림, ③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내 전파 차단을 위해 강화된 감염예방관리 수칙 준수(손위생 등) 등이 제시됨<sup>2)10)</sup>

· 국내\*에서는 '18년 해외유입 사례 보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음. 중동 지역 여행자의 경우 여행 중에는 농장방문 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 접촉하지 않기,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확진환자 접촉력을 알게 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하여 안내받을 것을 당부함<sup>11)12)</sup>

\* (국내 메르스 발생 현황) ('15) 186명 → ('18)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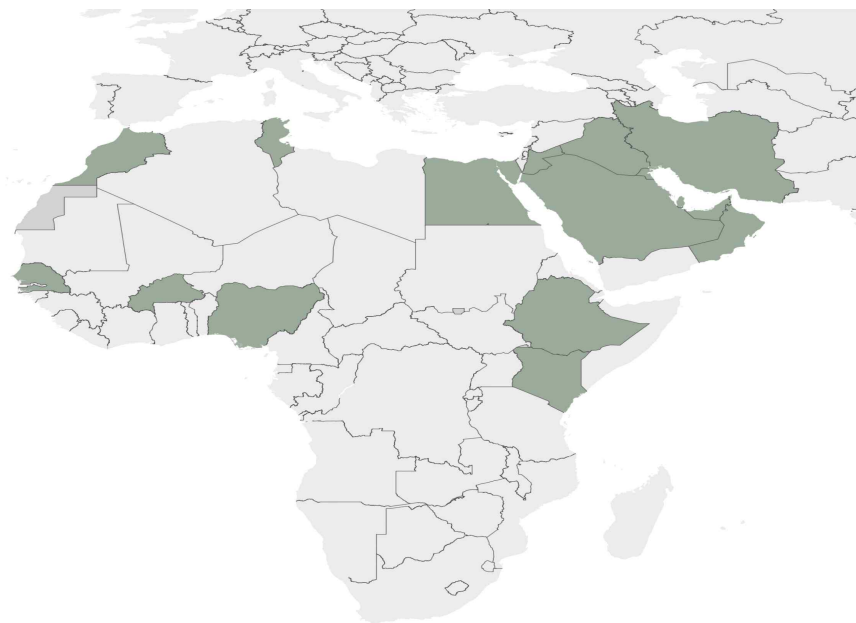


그림 1-2. 혈청학적 검사 등을 통해 동물에서 메르스가 확인된 국가 현황<sup>13)</sup>(FAO, '25.9.25. 기준)

- 
- 1) Deux cas de MERS-CoV, de retour de l'étranger, identifiés sur le territoire national (프랑스 보건부, '25.12.4.)
  - 2) Two case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in travellers returning to France from the Arabian Peninsula (ECDC, '25.12.5.)
  - 3) Follow up on imported MERS-CoV infections in France—cases report travel to Oman and dromedary meat consumption (BEACON BIO, '25.12.6.)
  - 4) 언론보도 | Un cas de coronavirus MERS détecté à Poitiers (Poitiers, '25.12.8.)
  - 5) 언론보도 | Deux cas de coronavirus MERS en France : les deux personnes revenaient d'un voyage de groupe à Oman et avaient mangé du dromadaire (franceinfo, '25.12.5.)
  - 6) MERS: France confirms first cases in 12 years (BMJ, '25.12.5.)
  - 7) MERS-CoV case in England (영국 PHE, '25.8.23.)
  - 8) MERS situation update, Global and regional cases Highlights (WHO EMRO, '25.9.3.)
  - 9) SURVEILLANCE REPORT Weekly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Week 45, 1–7 November, 2025 (ECDC, '25.11.7.)
  - 10) Rapid risk assessment. Severe respiratory disease associated with MERS-CoV 22<sup>ND</sup> Update, 29 August 2018 (ECDC, '18.8.29.)
  - 11) 보도참고자료 | '18년 메르스 국내 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질병관리청, '18.10.15.)
  - 12)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5.1.)
  - 13) MERS-CoV events in animals published or reported at national level (FAO, '25.9.25.)
-

## 2. 웨스트나일열, 스위스 West Nile fever in Switzerland

### 발생 상황

스위스에서 자국 내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사례 최초 발생을 보고함(12.4). '22년 당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티치노 주에서 3년 만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 스위스 티치노 주 보건당국은 스위스 최초의 웨스트나일열 자국 내 감염 사례 발생을 보고함(12.4.) 스위스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만 산발적으로 보고되었으나, '22년 티치노 주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후 3년 만에 웨스트나일열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sup>1)2)</sup>
- ※ (스위스 발생 현황) '24년 웨스트나일열 발생 1명(해외유입) 보고. '24년까지 보고된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 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황열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자국 내 감염 발생이 없었음<sup>3)</sup>
- 해당 사례는 스위스 남부 지역인 티치노 주 거주자로 웨스트나일열\*의 신경계 침습 질환 증상 중 하나인 수막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하였으며, 진단 검사를 통해 웨스트나일열 감염이 확인됨
- \* 감염자의 80%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 3일~6일 후 심각한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위 장관 증상 및 일시적 반구진 발진 등을 나타냄. 전체 감염자의 1% 이하는 중증인 신경계 침습 질환으로 진행함
- 유럽 지역 내 여러 국가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모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6월~11월 사이에 발생함. '25년(11.5. 기준) 유럽 14개국에서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사례 1,096명(사망 95명)이 보고되었으며, 사례 중에서 가장 빠른 증상 발생일은 5월 19일임<sup>4)</sup>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773명), 그리스(95명), 세르비아(62명), 프랑스(59명), 루마니아(49명), 스페인(31명), 헝가리(13명), 크로아티아(4명), 알바니아(3명), 독일(2명), 북마케도니아(2명), 불가리아(1명), 코소보(1명), 터키(1명)에서 보고됨
- 현재까지 보고된 '25년 유럽의 웨스트나일열 발생 수는 최근 10년간의 평균(751명)을 초과했지만, 많은 발생했던 '18년, '22년, '24년(동 기간 1,300명 이상) 대비 낮은 수치임. '25년 치명률은 8.9%로 최근 10년 간의 평균(10%)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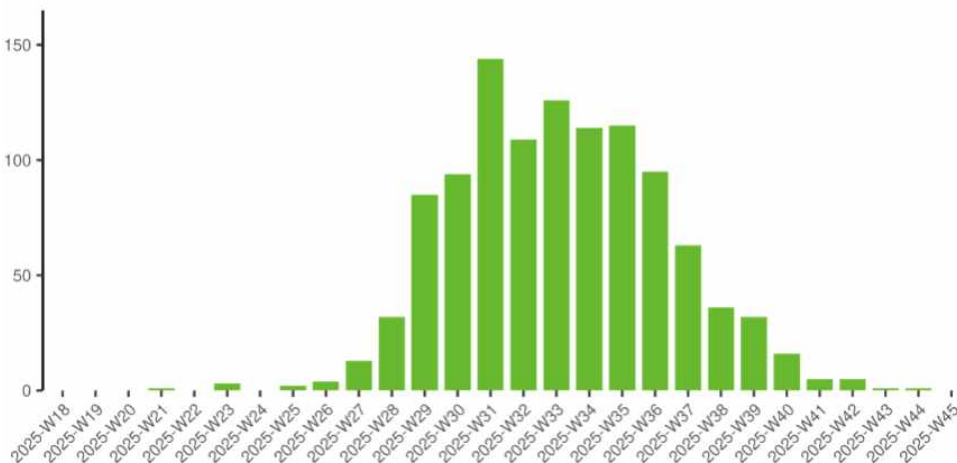


그림 2-1. '25년(~11.5.) 유럽 지역 주차별 웨스트나일열 지역감염 발생 현황(ECDC, '25.1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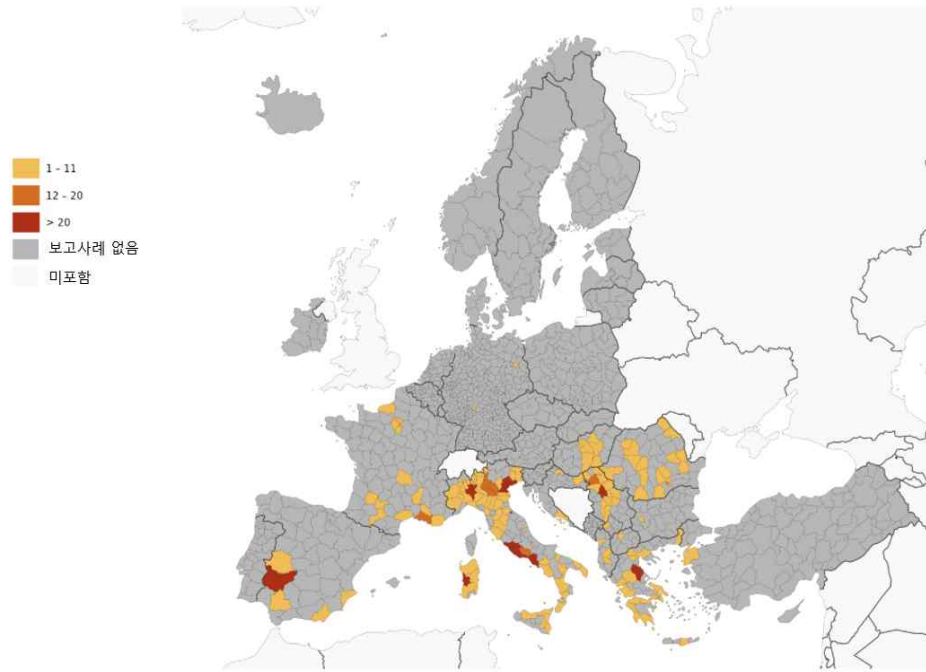


그림 2-2. '25년(~11.5.) 유럽 지역 웨스트나일열 발생 현황 (ECDC, '25.11.5. 기준)

### 상황 평가

- 보건당국은 티치노 주의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감염은 예상된 사건이며, 현재 모기 활동 기간이 끝났고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으나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권고

-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티치노 주는 웨스트나일열 유행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와 인접하고, 습지, 호수, 연못 등 다양한 야생 조류와 모기가 서식하는 자연 지역이 많은 지리적 위치로 2010년부터 아르보 바이러스에 대한 모기 감시를 시행하고 있음
  - '22년 티치노 주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최초 검출<sup>2)</sup> 이후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25년 여름에는 두 차례 검출됨<sup>1)</sup>
- 보건당국은 티치노 주의 모기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며 인접한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웨스트나일열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감염은 예상된 사건으로 첫 발생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함. 또한 현재 모기 활동 기간이 끝났고 웨스트나일열은 사람 간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sup>1)</sup>
  - 이번 발생에 따른 추가 권고사항은 없으며, 감시를 강화하고 매년 시행한 대로 내년 여름 초에 모기 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언급함

- 유럽에서 웨스트나일열 발생은 '24년(12.4. 기준) 19개국에서 1,436명 보고되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월평균 확진자보다 높은 수치임. 알바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4~5년간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다가 '24년에 다시 발생함<sup>4)</sup>
- 국내에서는 '12년 웨스트나일열 해외 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sup>5)</sup> 미국, 유럽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국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예방 물품 준비,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sup>6)</sup>

---

1) 보도자료 | 티치노에서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첫 지역 감염 사례 발생 (티치노 주 보건사회부, '25.12.4.)

2) First Detection of West Nile Virus Lineage 2 in Mosquitoes in Switzerland, 2022. (Pathogens, '23.12.7.)

3) 역학 상황보고서 | 2024년 스위스에서 덩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웨스트나일열, 황열 사례 보고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국, '25.12.4.)

4) Surveillance of West Nile virus infection in humans and animals in Europe, monthly report (ECDC, '25.11.12.)

5) 보도자료참고 | 미국,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발생,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청, '24.8.8.)

6)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25.12.9.)

### 3. 인플루엔자, 중국 & 일본 Influenza in China and Japan

#### 발생 상황

- 중국의 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증가 중으로 유행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48주차(12.3. 기준) 중국의 전체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률이 47.8%로 전주(40.9%) 대비 6.9%p 상승함<sup>1)</sup>
- '25년 48주차 일본의 인플루엔자 지표(감시 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4.99명(총 173,380명)으로 전주(51.12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4.86명)의 약 10배 수준임(12.5.)<sup>2)</sup>

- 중국의 남부 및 북부 지역에서 모두 인플루엔자 활동이 증가 중으로 48주차(12.3. 기준) 중국의 전체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률이 47.8%로 전주(40.9%) 대비 6.9%p 상승함
  - 지역별로는 남부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 like illness, ILI) 지표가 10.3%로 전주(7.8%) 대비 증가하였으며, 전년(3.5%) 동기 대비 높은 수준임. 북부 지역 또한 9.1%로 전주(8.6%) 대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전년(4.4%)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임
  - 현재 전국적으로 A(H3N2)형이 가장 우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형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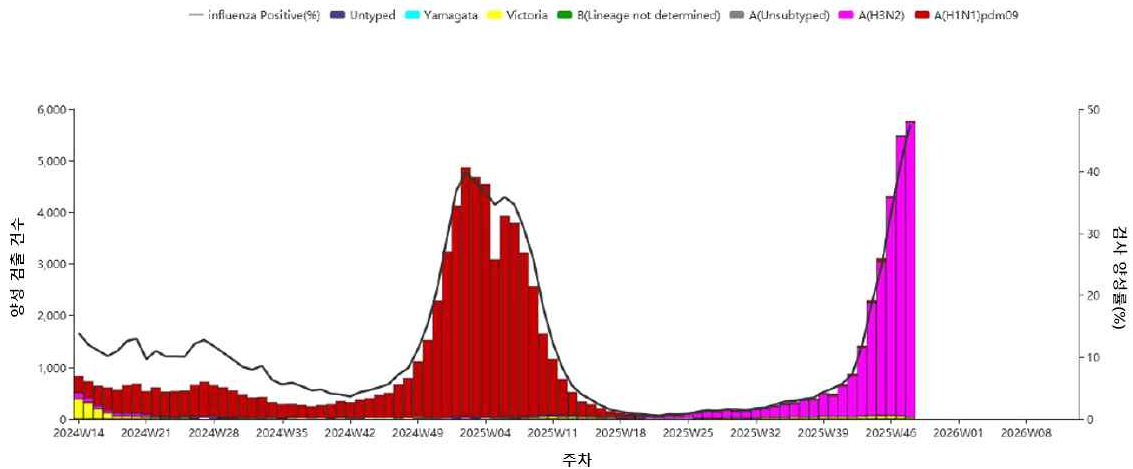


그림 3-1. 중국 남부지역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중국CDC, '25.12.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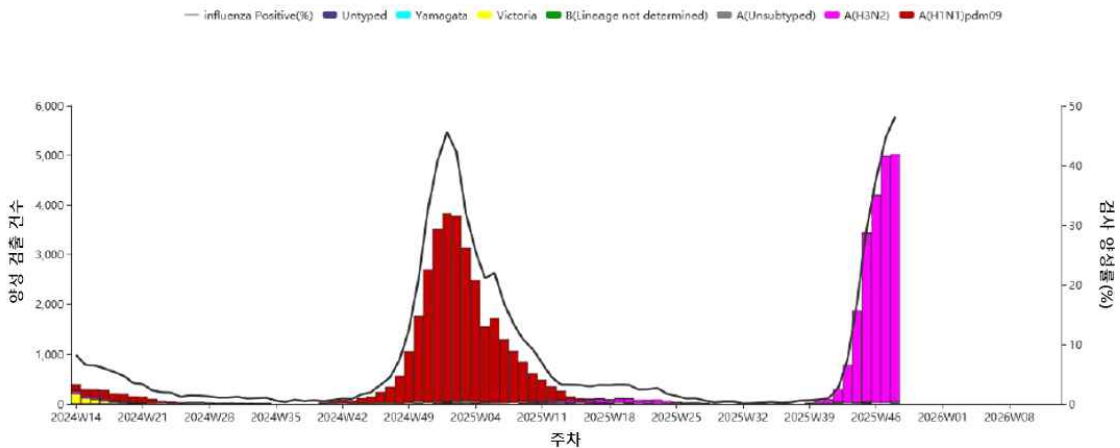


그림 3-2. 중국 북부지역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중국CDC, '25.12.3. 기준)

- '25년 48주차 일본의 인플루엔자 지표(감시 의료기관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4.99명(총 173,380명)으로 전주(51.12명)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간(4.86명)의 약 10배 수준으로 여전히 지난 절기보다 높은 상황임(12.5.)
  - 올해 일본의 인플루엔자 시즌은 39주차에 시작되어 작년보다 약 한 달 빨리 시작됐고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직전 주인 47주차를 기점으로 48주에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변동 양상에 따라 정점 도달 여부가 확인 될 것으로 보임
    - \* (44주) 14.90명 → (45주) 21.82명 → (46주) 37.73명 → (47주) 51.12명 → (48주) 44.99명
  - 지역별로는 사이타마(74.81명), 나가노(72.49명), 후쿠시마(64.81명), 이와테(61.50명), 도치기(58.83명) 등 순으로 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도시지역에서 높은 발생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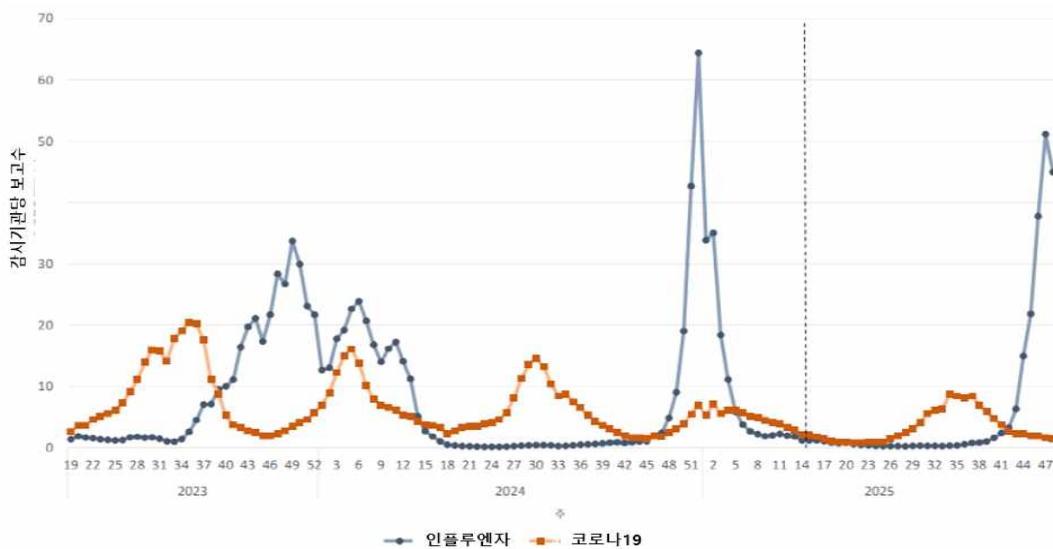


그림 3-3. '23년~'25년 일본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기관당 환자 현황 (일본 후생노동성, '25.12.5. 기준)

### 상황 평가

- 중국과 일본 모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하였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각국은 교육시설 집단발생 대응, 의료 역량 및 소아진료 확대,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등 감염 확산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년 동 기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어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

-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그에 따른 임시휴교가 발생하고 있음. 중국CDC는 향후 6주~8주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 대응과 소아 진료 및 의약품 공급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 중임<sup>3)4)</sup>

- 일본 언론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경보 기준\*을 넘어 39개 도도부현에서 인플루엔자 경보가 발령됐음을 언급하면서,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집에 머물기 등 개인 수준의 예방조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힘<sup>5)</sup>

\* 인플루엔자 지표가 10.0명 이상이면 주의보, 30.0명 이상이면 경보 발령

-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년 동 기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가 필요함<sup>6)7)</sup>

\*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46주) 66.3명 → (47주) 70.9명 → (48주) 6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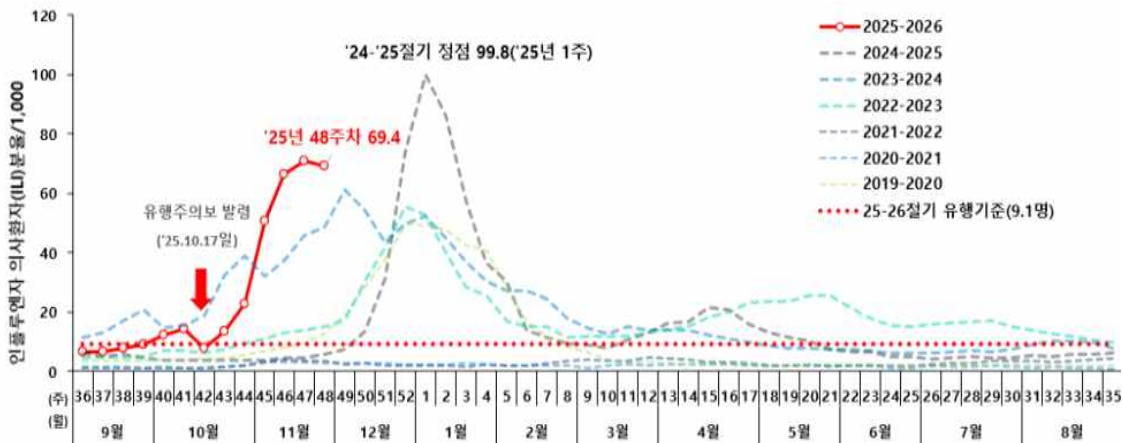


그림 3-4. 최근 7개 절기 대비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질병관리청, '25.12.10.)

1) 중국 인플루엔자 주간 감시보고서 48주차 (중국CDC, '25.12.3.)  
 2) 보도자료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025년 12월 5일 (일본 후생노동성, '25.12.5.)  
 3) 17 provinces see high rates of influenza: China CDC (Global Times, '25.12.3.)  
 4) Vaccination encouraged amid rising flu cases in China (The Straits Times, '25.12.5.)  
 5) Japan's flu season comes early as new variant spreads (The Japan Times, '25.12.2.)  
 6) 2025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48주차 (질병관리청, '25.12.4.)  
 7) 보도참고자료 |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질병관리청, '25.12.10.)

## 4. 세균성이질, 유럽 지역 Shigellosis in EU/EEA & UK

### 발생 상황

'25년 12월 3일 기준, EU/EEA 4개국(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및 영국에서 세균성이질 환자 193명이 ECDC에 보고됨. 환자의 대부분은 카보베르데(서아프리카 섬나라) 여행력이 있으며, *Shigella sonnei*에 의해 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통 감염원의 존재를 시사함

### ■ EU/EEA 국가

- '25년 12월 3일 기준, EU/EEA 4개국(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세균성이질 환자 56명이 ECDC에 보고됨. 환자의 대부분은 최근(9월~11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섬나라 카보베르데(Cape Verde) 여행력이 있으며, 해당 국가 내 특정 지역(Sal, Boa vista)에 있는 호텔·리조트 체인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됨. 추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 특정 혈청형의 이질균 *Shigella sonnei*\*에 의해 주로 감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유행기간 동안 공통된 감염원이나 지속적인 전파경로를 통한 감염을 시사<sup>1)</sup>

\*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Shigella flexneri*, *Shigella boydii*, *Shigella sonnei*) 중 하나로 심한 설사, 발열, 복통 유발 가능<sup>5)</sup>

- 세균성이질 감염경로나 공통된 노출원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다양한 가능성 중 식품매개 전파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람 간 전파(person-to-person)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언급함
- 한편 '22년에도 카보베르데 여행\*과 연관된 세균성이질(주로 *Shigella sonnei*) 환자 총 258명('23.2.16. 기준)이 EU/EEA 10개국, 영국, 미국에서 보고된 바 있음. 당시 EU/EEA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네덜란드(47명), 스웨덴(42명), 프랑스(31명) 등 순으로 보고됨<sup>1)2)</sup>

\* 대부분 카보베르데 살(Sal) 섬의 산타마리아(Santa Maria) 지역 내 리조트 체류와 관련됨

### 스웨덴

- '25년(12.3. 기준) 스웨덴에서 카보베르데 여행력 있는 세균성이질 환자 26명\*이 보고되었고, 이 중 23명(확진자 15명, 의심 환자 8명)은 10월 24일 이후 보고된 사례임. 환자의 연령대는 14세~77세(중앙연령 52세)이고 대다수가 여성(16명)으로 확인됨<sup>1)</sup>
- 대부분의 환자는 살(Sal) 섬의 산타마리아(Santa Maria)나 보아비스타(Boa Vista) 지역 내 여러 호텔에 머물렀으며 오염된 식품 섭취가 주요 감염경로로 보고됨<sup>1)</sup>
- 스웨덴공중보건청(FOHM)에 따르면 '25년(12.8. 기준) 세균성이질 확진자 768명 중 해외감염 환자는 593명으로 전체 환자 중 해외유입이 77.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sup>3)</sup>

### 프랑스

- '25년 발생한 세균성이질 환자는 21명으로 과거('23년 6명, '24년 5명)에 비해 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환자의 대부분(16명)은 카보베르데 여행력이 있음. 연령대는 2세~62세로 보고됨<sup>1)</sup>

### 네덜란드

- '25년 9월~10월에 세균성이질 환자 8명이 보고되었으며<sup>1)</sup>, 카보베르데에서 살, 보아비스타 지역의 리조트에 머물던 여행자들로 확인됨<sup>4)</sup>
-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는 '22년 세균성이질 유행 이후 '23년~'24년에는 환자

보고 건수가 감소했으나 '25년 가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카보베르데 여행자를 대상으로 이질균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함. 또한 여행 중 증상 발생 시 현지 진료 및 치료 안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함

아일랜드

- '25년 카보베르데 여행력(1월 중순) 있는 세균성이질 환자 1명 보고됨

■ 영국<sup>5)</sup>

- 영국에서 '25년 10월 1일 이후 보고된 세균성이질 환자 중 137명이 특정 균주(*Shigella sonnei*)에 의해 감염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중 109명은 카보베르데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영국보건 안보청(UKHSА)은 이번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이 카보베르데 여행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함(12.4.)
  - '25년 10월 실험실 데이터 감시 결과, 이질균 중 특히 *Shigella sonnei* 진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추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 *Shigella sonnei* 감염의 증가가 단일 균주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공통된 감염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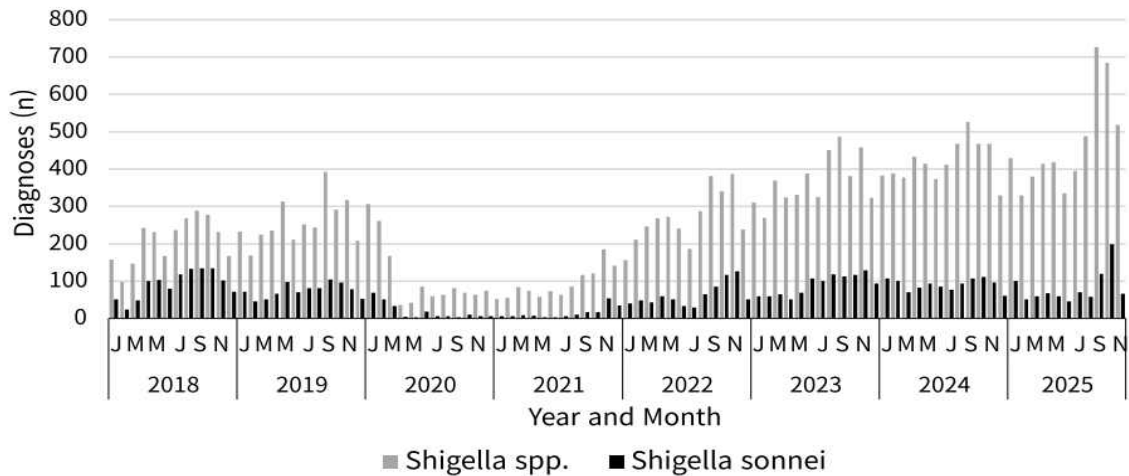


그림 4-1. England의 이질균 및 *S.Sonnei* 진단 추이('18.1월~'25.11월) (UKHSA, '25.12.4.)

- 세균성이질(*S. sonnei*) 환자(137명)의 거주 지역은 잉글랜드(113명), 스코틀랜드(12명), 웨일스(12명)로 확인됨. 전체 환자 중 여성이 72.3%(99명)를 차지하였고, 발생 연령대(0세~81세, 중앙값 54세)는 50세~59세(40.1%, 55명)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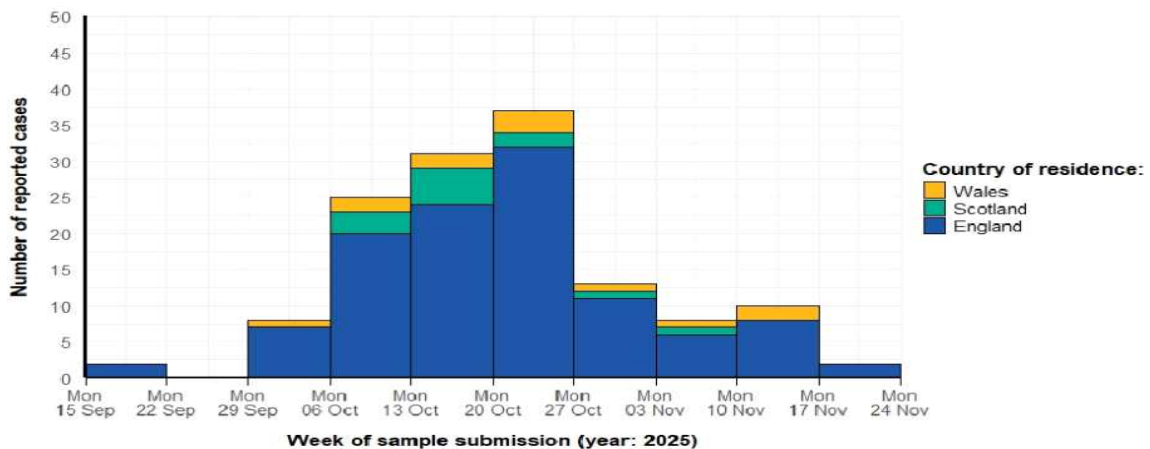


그림 4-2. '25년 영국의 *S.Sonnei* 사례 발생 추이(검체 제출일 기준) (UKHSA, '25.12.4.)

### 상황 평가

- ECDC는 카보베르데 여행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동일한 이질균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카보베르데 여행자의 세균성이질 감염 위험을 ‘중간(moderate)’ 수준으로 평가함
- '25년(12.7. 기준) 국내에서 보고된 세균성이질 신고 환자 수는 59명(국내발생 48, 해외유입 11)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주요 예방수칙(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등)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함

- ECDC는 카보베르데 여행과 관련하여 수년에 걸쳐 동일한 이질균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파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25년 12월 기준 제한적 자료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으나, 카보베르데 여행자의 세균성이질 감염 위험을 ‘중간(moderate)’ 수준으로 평가함<sup>1)</sup>
  - 한 연구기관에서는 이번 세균성이질 유행 사례는 계절 여행 패턴을 고려할 때 겨울철에는 환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카보베르데 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행 성수기에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sup>6)</sup>
- '25년(12.7. 기준) 국내 세균성이질 신고 환자 수는 59명이며 이 중 국내 발생은 48명(81.36%), 해외 유입은 11명(18.64%)으로 보고됨. 세균성이질 환자 신고 수는 '18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5년('21년~'25년) 동안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sup>7)</sup>

\* 최근 5년 세균성이질 환자 신고 수: ('21년) 18건 → ('22년) 31건 → ('23년) 37건 → ('24년) 41건 → ('25.12.7. 기준) 5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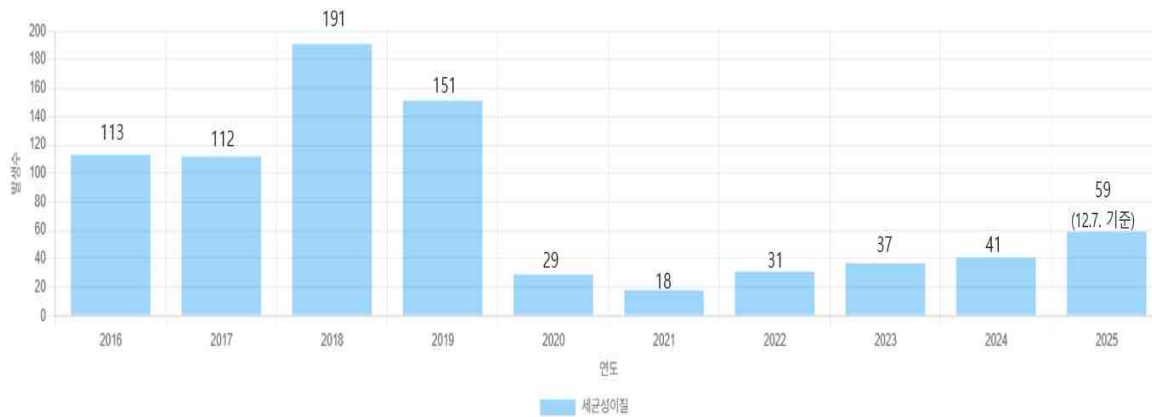


그림 4-3. '16년~'25년 국내 세균성이질 환자 신고 수(감염병포털, '25.12.7.)

- 세균성이질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함<sup>8)9)</sup>

\*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30초 이상),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등),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질병개요	세균성이질	<Shigellosis> <sup>9)</sup>
정의	· 이질균( <i>Shigella dysenteriae</i> , <i>S. flexneri</i> , <i>S. boydii</i> , <i>S. sonnei</i> )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병원체	· 이질균( <i>Shigella spp.</i> ) : 그람음성 막대균 - <i>S. dysenteriae</i> , <i>S. flexneri</i> , <i>S. boydii</i> , <i>S. sonnei</i> (각각 serogroup A, B, C, D에 해당)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오염된 식수와 식품매개로 주로 전파됨 ·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 직접·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12시간~7일(보통 1일~4일)	
증상	· 고열,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잔변감 등 · 경증의 경우, 증상은 4일~7일 후 저절로 호전되며 무증상 감염도 가능 · <i>S. dysenteriae</i> 가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 <i>S. sonnei</i> 감염 임상증상은 경미함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에서 세균성이질균 분리 동정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내성을 고려한 약제 선택	
치사율	· 적절한 치료 시 1% 내외 · 치료받지 않으면 20%에 이를 수 있음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1)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week 49 (ECDC, '25.12.5.)  
 2) Outbreak of *Shigella sonnei* in the EU/EE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mong travelers returning from Cabo Verde (ECDC, '23.2.17.)  
 3) Shigellainfektion – sjukdomsstatistik (스웨덴공중보건청, '25.12.8.)  
 4) Reizigers naar Kaapverdië: pas op voor darminfectie shigellose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 '25.12.10.)  
 5) Research and analysis, HPR volume 19 issue 11: news (UKHSA, '25.12.4.)  
 6) Recurrent multi-country shigellosis outbreak in travelers returning from Cape Verde, with 137 cases reported in the UK since October 2025 (BEACON, '25.12.6.)  
 7) 세균성 이질 신고 환자 발생현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감염병포털, '25.12.7.)  
 8) 보도참고자료 | 동남아 지역 여행 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 '18.2.28.)  
 9) 2025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5.2.13.)

## 참고사항

###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12.10. 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12.4.~12.10.)	· 발생 없음
'25년 발생 (12.10. 기준)	· 8개국에서 32명 발생(사망 12명) - 캄보디아(18명, 사망 9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4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1명, 사망 1명)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 25개국에서 994명 발생(사망 477명, CFR 48.0%)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90명, 사망 52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 WHO(9.29.)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 대상

####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일정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 임신부

9. 29.(월) ~

#### 65세 이상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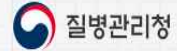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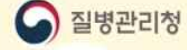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2024.7.26.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 5대 예방수칙



### 첫째, 기침에 절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감염병소식 >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